

SEOUL MIGRANT WOMAN SHELTER 2021

수록 사례

1. 경제적 폭력

나에게는 생존이었던 귀화.

당신에게는 수단이 된 귀화.

2. 아동의 유기

쉼터가 세상의 전부이던 아이는 자라서.

쉼터 존재의 이유

서울 동대문의 한 베트남 마트에 들렀습니다. 주로 베트남에서 생산한 라면이나 과자 같은 공산품에서부터 야채나 견과물 같은 식료품도 파는 곳으로 10평 남짓한 가게에 물건이 빼곡합니다. 토요일이라 그런지 손님도 빼곡합니다. 손님은 대부분 베트남 사람으로 보이는 이주민들이고, 간혹 한국 선주민들도 보입니다.

저는 베트남에 갔을 때 맛보았던 열대과일 말린 과자와 베트남 라면을 집어 들었습니다. 계산을 하려 하니 사장님이 돈을 안 받겠다고, 그냥 가져가라고 떠칩니다. 돈을 받지 않으면 물건을 가져가지 않겠다고 한참을 실랑이합니다. 결국, 계산을 못하고 나온 저는 다음에 안 오겠다고 큰소리를 칩니다.

저를 떠밀면서 계산을 못하게 만든 사장님, 베트남 출신입니다. 오래 전에 우리 서울이주여성쉼터에서 생활했던 이주여성입니다. 한때, 남편과 시가족의 학대를 피해 쉼터에 머물렀던 이 여성은 남편과 시가족의 악의적인 비난으로 이혼도, 귀화도 쉽지 않아 모두 소송을 해야 했습니다. 맨몸으로 도착한 쉼터에서 안정적인 지원을 받은 것이 남편을 상대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할 힘이 되었다고 이 여성은 생각합니다.

동대문의 베트남 이주민 사회에서 꽤 탄탄한 사업기반을 다진 뒤에도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민에게 차별적인 코로나 방역 지원에 항의하는 인권 캠페인에 자신의 가게 앞을 선뜻 내줍니다. 지나가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가게의 손님들에게 캠페인에 참여하라고 베트남 말로 이야기합니다.

이 베트남 마트에 갈 때마다 물건값을 가지고 늘 실랑이하지만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고마웠던 사람에게 물건을 그냥 줘도 될 만큼 장사 잘하고 있다고 큰소리치는 이 여성의 자신감이 좋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밑천 삼아 이주민의 권리를 위해 생업의 현장을 내어주는 이 여성의 넉넉함이 좋습니다. 가성비를 끊임없이 따지는 사회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연대감을 실천하는 이 여성의 오지략이 좋습니다.

서울이주여성쉼터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2022년 2월
허오영숙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이주여성이며, 한국에서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우리의 일상은 가정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이러한 생활이 누구에게는 가정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누구에게는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1년, 전국 폭력피해 이주여성시설에 입소자가 줄었습니다. 좋은 현상일까요? 코로나19로 폭력이 줄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전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게 폭력이 일어나고, 많은 여성들이 고통 받고 있지만 폭력의 장소로부터 벗어나 공동시설(쉼터)에 들어오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에 걸릴 수 있다는 또 다른 두려움에 참고 살고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언어소통이 잘 되지 않는 이주여성들은 선주민 여성들보다 그 두려움이 더 클 것입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를 지키기 위하여, 체류연장을 위하여, 이혼 후 한국에서 살아가야 할 삶이 너무 크기에 폭력으로부터 참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자 비자로 온 여성들 또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성추행, 성폭행, 언어폭력 등을 당하면서도, 사업장 이동의 어려움과 체류연장과 고향의 가족에게 보낼 돈을 벌기 위해 참고 근로하는 이주여성들이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여성들은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남성으로부터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무국적 아이가 되기도 합니다.

이주여성들은 다양한 이유로 한국에서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폭력을 당하면서 어떻게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지 방법을 모르는 이주여성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는 그녀들이 살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다누리콜센터, 이주여성상담센터, 경찰, 지역 이주민센터 등 그녀들이 도움만 요청하면 언제든지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우리는 내 이웃에 폭력을 당하고 있는 이주여성들이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지원센터로 연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쉼터는 그녀들과 자녀들이 살 수 있도록 심신회복, 치료, 상담, 교육, 문화체험 등 그녀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이주여성의 체류연장(자격이 되는 자), 귀가, 이혼(법적, 협의), 인지등록, 독립, 자립쉼터 연계 등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서 폭력을 당하고 있는 이주여성이며 참고 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도 한국에서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세요.

2022년 2월

김경희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부설 서울이주여성쉼터 소장

contents

| | | |
|---|---|----------------|
| 1 | 서울이주여성쉼터 소개 | |
|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 6 |
| | 서울이주여성쉼터란 | 7 |
| | 서울이주여성쉼터 연혁 및 입소경로 | 7 |
| 2 | 2021년 입소자 현황 | |
| | 월별 입소자 현황 / 퇴소 후 상황 | 8 |
| | 입소자 출신국 / 아동 연령별 입소 현황 | 9 |
| 3 | 2021년도 사례 : ‘HER STORY’ | |
| | 나에게는 생존이었던 귀화. 당신에게는 수단이 된 귀화. 쉼터가 세상의 전부이던 아이는 자라서. | 10~11 12~13 |
| 4 | 2021년 우리들은 : ‘OUR STORY’ | |
| | 우리들의 이야기 | 14~19 |
| | 2021년 프로그램 활동 | 20 |
| | 퇴소자 주요 사후관리 및 지원 | 21 |
| 5 | 함께해준 사람들 | |
| | 2021년 법인전입금 및 후원금 수입·지출 현황 | 22 |
| | 2021년 후원명단·후원물품·자원봉사자 | 23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이주여성쉼터)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스토킹 피해 이주여성 및 그 가정 구성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통한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비공개시설이며 전국에 28개소가 운영 중이다.

출처 - 2022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보호시설의 업무(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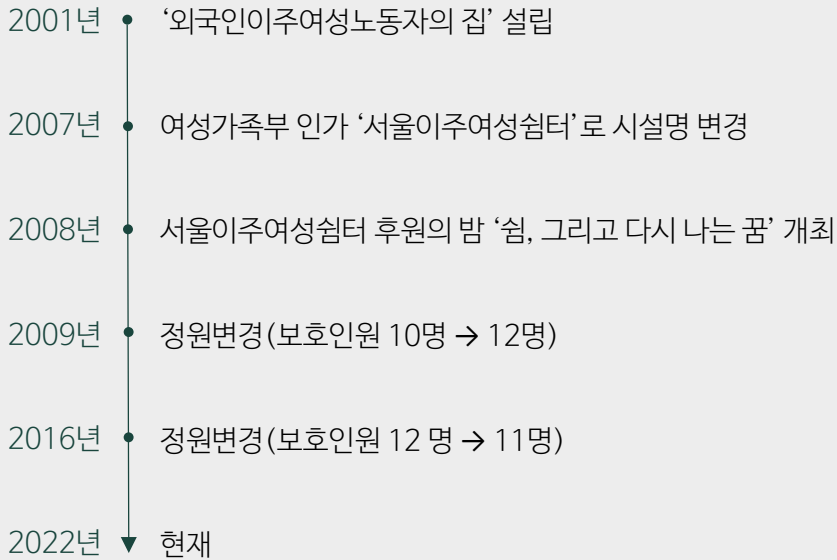
- 숙식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지원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지원
-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 시설 퇴소 후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 그 밖에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

서울이주여성쉼터

‘서울이주여성쉼터’란?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부설 기관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 2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그 가정구성원을 최대 2년까지 보호하는 중·장기 쉼터이다.

서울이주여성쉼터가 걸어온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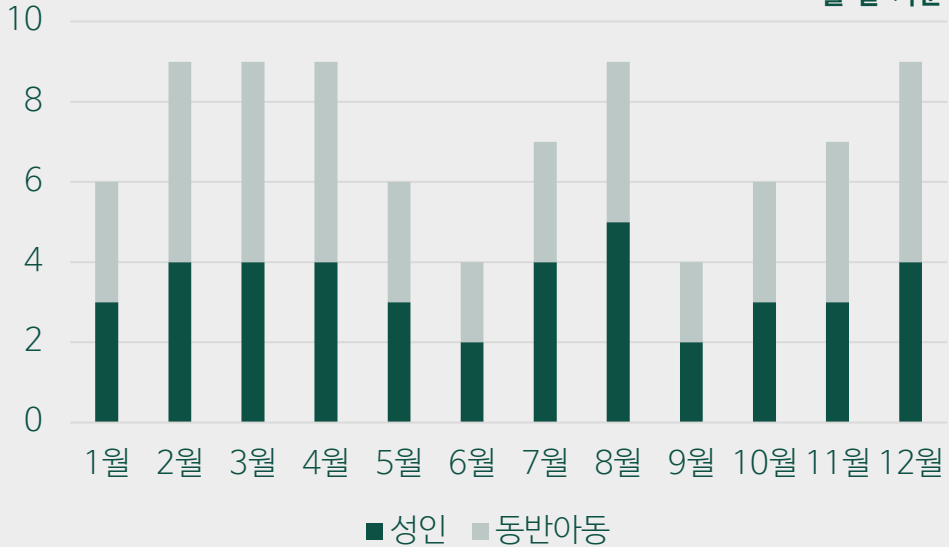
서울이주여성쉼터 입소경로

- 이주여성상담센터
- 다누리콜센터
- 경찰서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타시설 연계
- 기타

2021년 입소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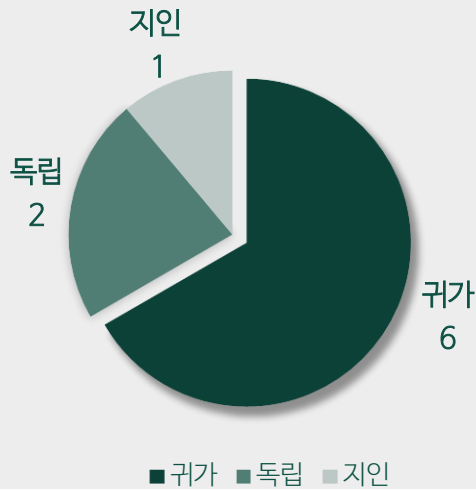
월별 입소자 현황

입소정원 총 11명
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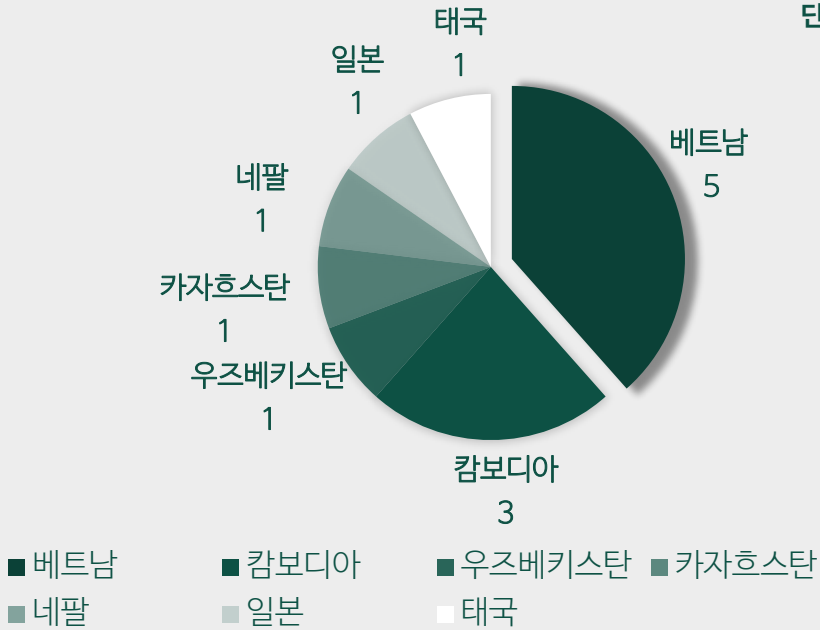
퇴소 후 상황

단위 : 명



입소자 출신국

단위 : 명



아동 연령별 입소 현황

단위 : 명



HER STORY

경제적 폭력

나에게는 생존이었던 귀화. 당신에게는 수단이 된 귀화.

“귀화만 하면 남편과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다.
귀화가 또 다른 폭력의 연결고리가 될 줄이야...”

입소 배경

A는 2008년 베트남에서 결혼 이주하였고 2014년 한국국적으로 귀화하였다. A는 생활고에 시달리며 혼자 가족의 생계를 부담해왔다. 국적을 취득하자 남편이 금전을 요구,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서류 등에 서명을 강요하는 등 A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고 차량을 구매했다. A는 쉬지 않고 일을 하였으나 자신도 모르는 빚은 늘어만 갔다. 남편의 경제적, 정서적 학대로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아동과 함께 서울이주여성쉼터에 입소하였다.

입소 당시 그녀가 원했던 것은?

- 남편과 협의이혼(친권 및 양육권)
- 빚을 비롯한 경제환경 개선 및 해결
- 자녀의 학업 및 교육 지원

지원내용

- 법률지원: 협의이혼 지원(친권/양육권), 대출 관련 합의 및 공증 지원
- 의료지원: 병원 진료, 건강검진, 예방접종
- 정서안정: 개인상담, 집단상담, 칼림바 프로그램 등
- 인간관계: 한국어, 문화체험 등 퇴소 후의 사회적응 준비
- 아동지원: 비밀전학, 상담(놀이치료), 종합심리검사 연계
- 생활지원: 의식주, 생일잔치 등
- 자립지원: 자립지원금, 주택 계약 지원, 생필품 지원, 자원 연계, 아동 교육 연계 등

퇴소 후, 그녀의 이야기는?

쉼터 근처에 집을 얻어 두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그녀의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의류, 원단 관련 업체에 취업했다. 누구보다 행복하고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하며 자녀들과 함께 밥을 먹고, 안전한 공간에서 잠을 자고 더 행복한 미래를 천천히 준비하고 있다.

폭력의 종류와 형태에는 끝이 없다. 이주민 경제교육의 중요성.

이주여성들이 불안정한 체류권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자녀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귀화'를 선택하고 희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귀화한 후 안정적인 생활이 아닌 명의도용을 비롯해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오는 빚 독촉 전화와 여러 금융 회사에서 날아오는 대출 문자들, 알 수 없는 빚 등 심한 경제적 폭력을 겪었습니다.

언어소통의 어려움, 한국 경제관념의 이해 부족 등 이주여성 특성과 '귀화'라는 것이 또 다른 폭력의 연결고리가 된 셈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이야기뿐만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모두의 일입니다.

경제는 내 삶의 중요한 문제이지만 교육을 받거나 준비된 사람은 적습니다. 이주여성들이 더 행복한 삶을 희망하며 선택하는 길에 이에 맞는 경제관념과 교육도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한 그녀는 늘 그랬듯 숨 가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가 힘들 때, 기쁠 때 숨을 돌리고 나눌 수 있는 곳이 되고 싶습니다. 늘 웃으며 안부를 전하는 그녀에게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경복궁에서 아들과 함께

엄마와 동생들에게 나눠줄 깜짝 선물 유부초밥 만들기!



HER STORY

남편의 아동 유기 쉼터가 세상의 전부이던 아이는 자라서.

“남편을 소개해준 이가 남편 될 사람이 착하고 책임감 있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다고 했다.
용기를 내어 결혼을 결심했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한국으로 왔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남편은 아내 될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돈도 벌여오고, 자신이 방임한 아이와 손자도 키워주고, 살림도 해주고,
폭력도 참아줄 그런 기계가 필요했었나 보다.”

입소 배경

이주여성 B는 2010년 국제결혼 후 9년 동안 경제활동을 하면서 남편의 전혼 자녀를 돌보고 어린 손자를 키우는 등 홀로 가족들의 생계와 돌봄을 책임졌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끊임없이 물리적인 폭력과 정서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으로부터 본인과 뱃속의 태아를 지키기 위해 2019년 11월 서울이주여성쉼터에 입소하였다.

입소 당시 그녀가 원했던 것은?

- 안정적인 환경에서의 출산과 신생아 건강하게 키우기.
- 남편과 혼인 관계 종료하기(친권, 양육권).
- 아이와 함께 살기.

지원내용

- **법률지원**: 체류 연장 지원, 이혼소송 변호사 상담 및 법률 지원
 - ※ 남편이 쉼터에서 출생한 아이를 부정하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아서 명확한 소송이었음에도 2년 가까이 끌여오다가, 2021년 8월 위자료 일절 없이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갖고 소액의 양육비를 받는 조건으로 종료.
- **의료지원**: 아동 출산 지원, 어머니와 아동의 병원 진료 및 병원비 지원
- **정서안정**: 집단상담, 치료회복프로그램 등 정서적 안정 지원
- **인간관계**: 한국어, 부모 자녀 소통교육, 문화체험 등 퇴소 후의 사회적응 준비
- **아동지원**: 기저귀, 분유 등 생계 지원, 어린이집 연계, 돌봄 지원
- **생활지원**: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어머니와 아동을 위한 거주, 주·부식, 의류 등 지원
- **자립지원**: 자립지원금, 주택 계약 지원, 생필품 지원, 지역자원 연계 등

퇴소 후, 그녀의 이야기는?

현재 쉼터 근처에서 아이와 함께 살고 있으며, 베트남 식당에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요리솜씨가 좋은 그녀는 종종 맛있는 베트남 음식을 만들어 쉼터 사람들에게 나눠주곤 한다. 지겨운 소송이 끝나서 편안하고,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고 한다.

우리 모두의 아이가 되어줘서 고마워. 따뜻하고 포근한 새 보금자리에서의 모든 처음을 응원하며.

쉼터가 고향인 아이.

아이가 밤하늘을 처음 본 건 태어난 지 1년 하고도 반년이 더 지난 뒤였다. 한밤중에 열이 많이 나서 차로 야간진료실을 찾아가던 날. 캄캄한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가로등에 놀라서, 아픔도 잊은 채 신기한 듯 차 창 밖을 두리번거리며 쳐다보던 아이의 눈을 잊지 못한다. 쉼터를 떠나던 날, 선생님이 함께 가지 않는 게 이상한 듯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뒤를 자꾸 돌아보던 그 눈도.

아빠가 부정했던 그때 그 아이는, 이제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해님, 달님, 별님을 보며 뛰노는 '우리 모두의 아이'가 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도화지에 그림 그리기

엄마와 함께하는 첫 꽃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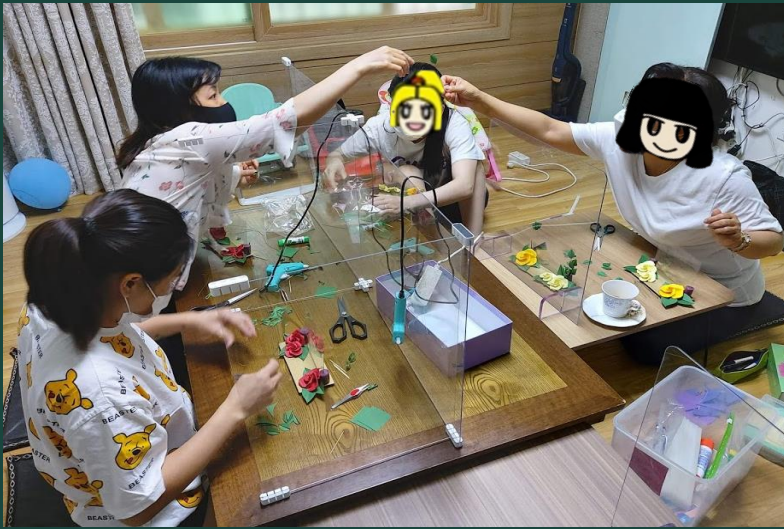
OUR STORY



MERRY CHRISTMAS~~ 쉼터에 산타가 나타났다!



새로운 음식을 만들고 다 같이 나누어 먹는 즐거움



직접 손으로 만드는 수공예시간

아이들과 함께 핫도그 만들기
오늘은 내가 요리사!



새로운 취미 칼림바가 생겼어요

OUR STORY



벚꽃보다 예쁜 그녀들



그녀들의 푸르른 날들 중의 하루



날씨도 하늘도 모든 게 아름다웠던 산책길

맑은 날, 너른 경복궁을 뛰노는 아이



어느 무더웠던 여름
어린이대공원 분수광장



OUR STORY



사랑스러운 우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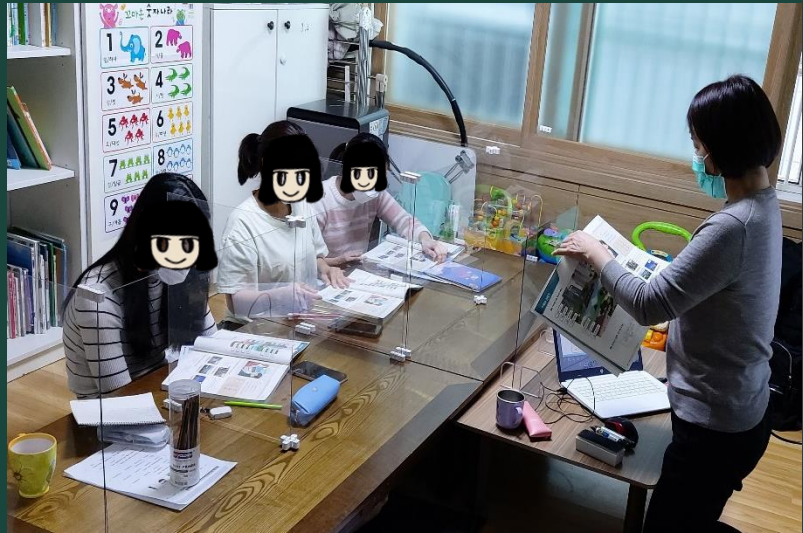


강릉 바다의 기운을 모아 합체!



넓고 넓은 바다 속 동물친구들과 놀아요!

한국어수업



집에서도 건강관리는 철저하게!
함께해요 홈트레이닝.

2021년 프로그램 활동

| 영역 | 세부프로그램 | 내용 | 자원통계 | |
|--------------|-----------------------------|--|------|----|
| | | | 회기 | 인원 |
| 상담 | 성인상담 | 1:1 심리정서대면상담 | 24 | 24 |
| | 아동상담 | 1:1 미술치료, 언어치료, 놀이치료 | 48 | 48 |
| | 집단상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감성코칭 •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올바른 양육법 | 10 | 29 |
| 정서회복 | 칼림바 | 정서안정에 도움이 되는 칼림바 수업 | 15 | 49 |
| | 종이공예 |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수공예품 만들기 | 15 | 40 |
| | 아동요리교실 | 요리활동의 즐거움과 음식에 대한 이해 높이기 | 4 | 6 |
| | 쿠킹클래스 | 함께 음식을 만들며 공동생활의 소통과 화합 배우기 | 3 | 12 |
| | 홈트레이닝 | 건강한 신체활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및 체력증진 | 3 | 13 |
| | 손뜨개 | 실생활에 필요한 나만의 소품 만들기 | 1 | 2 |
| 인간관계 | 한국어 | 실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어휘력 향상, 회화문법습득 | 31 | 88 |
| | 특강: 인권, 아동학대예방, 성폭력예방 | 자신의 기본 권리를 지키고, 타인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에 대한 교육 | 3 | 8 |
| 심신회복 문화체험 | 북서울꿈의숲 | 봄의 푸릇푸릇한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쉬기 | 1 | 7 |
| | 경복궁 | 고즈넉한 조선의 정궁 체험을 통한 심신 회복 | 1 | 6 |
| | 서울어린이대공원 | 가족테마공원에서 엄마와 아이 마음껏 뛰어놀기 | 1 | 4 |
| | 롯데아쿠아리움 | 바닷속 생물과 특별한 만남 경험하기 | 1 | 4 |
| | 강릉강문해변 | 육아도 쉽이필요! 강릉 바다에서 엄마들만의 시간 갖기 | 1 | 2 |
| | 양평키즈폴빌라 (1박2일) | 안전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코로나와 일상생활로 지친 심신 회복 | 1 | 7 |

퇴소자 주요 사후관리 및 지원

| 이름 | 국적 | 자원분야 | 내용 |
|----------|---------------|----------------------------------|--|
| 가00000 | 필리핀 | 의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의친구들' 미등록이주민의료지원금사례연계 |
| 김00 | 대한민국 (베트남) | 의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심리검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 · 코로나확진자가격리시식품, 생필품등 지원 |
| 로000000 | 캄보디아 | 법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류연장시필요서류입퇴소사실확인서발급 |
| 레000000 | 베트남 | 사회보장, 생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건강보험공단시설입소확인서발송(건강보험신청) · **시청사회보장급여신청 · 화장품등 생필품 지원 |
| 비0000 | 네팔 | 법률, 학습, 의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론기일 관련 연락지원 · 사회통합프로그램수업신청, 일정안내등 지원 · 코로나백신 2차접종동행 |
| 셋00000 | 캄보디아 | 생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례연계 · 퇴소 후 일상생활상담지원 |
| 안00 | 베트남 | 생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생필품등 지원 |
| 클0000000 | 태국 | 법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국적취득통보서우편발송 · 자녀태국국적포기시필요서류건으로부와연락지원 · 아동통장및여권발급시부와연락지원 · 출국후재입국시비자발급에필요한서류전달 |
| 팜00000 | 베트남 | 법률, 의료, 사회보장, 생활, 학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입신고, 이혼신고동행 · (사)대한여한의사회방문진료및한약지급 · 한국어, 칼림바, 종이공예, 심신회복치료회복프로그램참여 · 건강보험가입관련건강보험관리공단외국인센터동행 · 외국인등록증수령세종로출입국동행 · 남편등초본열람제한신청건주민센터동행 · 식품, 생필품등 지원 · 긴급복지,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신청동행 |

2021년 법인전입금 및 후원금 수입 · 지출 현황



법인전입금 수입 · 지출

(단위: 원)

| 수입 | | 지출 | |
|-----------|------------------|-----------|------------------|
| 전기 이월금 | 3,598,259 | 2021년 지출 | 1,853,215 |
| 2021년 수입 | 1,461,743 | 차기 이월금 | 3,206,787 |
| 총계 | 5,060,002 | 총계 | 5,060,002 |



후원금 수입 · 지출

(단위: 원)

| 수입 | | 지출 | |
|-----------|-------------------|------------|-------------------|
| 전기 이월금 | 6,405,410 | 운영비 | 200,000 |
| 지정후원금 | 400,000 | 긴급지원비 | 1,430,510 |
| 비지정후원금 | 1,700,000 | 치료회복프로그램비 | 0 |
| 기초복지지원사업 | 780,000 | 공공요금, 명절선물 | 780,115 |
| 위기아동지원사업 | 4,378,960 | 주거비, 생계비 | 4,378,960 |
| 예금이자 | 6,731 | 차기 이월금 | 6,881,516 |
| 총계 | 13,671,101 | 총계 | 13,671,101 |

2021년 후원명단 · 후원물품 · 자원봉사자

후원금

지정후원 : 한미덕, 김경희

비지정후원 : 예담교회, 스카이맥, 대한여한의사회

후원물품

[방역물품]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의약품]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전국심터협의회(휴베이스), 대한여한의사회

[식품]

**구청, **구 부녀회, 심형택, 전국심터협의회서울권역, 조종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기장복지재단

[기타]

**어린이집,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지원단체(법률, 상담, 의료, 통역, 학습)

다누리콜센터, 다문화너머서, 닥터노아치과의원, 동대문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한여한의사회, 법률사무소제이씨애파트너스, 서울봄연합의원, 서울아동해바리기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서울의료원, 성북아이세상발달센터, **어린이집,

한국여성변호사협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스카운셀링센터

후원 계좌

우리은행 1006-980-136915 (예금주 : 서울이주여성센터)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은 이주여성 인권보호와 자립을 위한 일에 쓰입니다.

후원, 자원봉사, 사랑으로 관심 가져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활동가들과 이주여성들에게 응원과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서울이주여성쉼터 소식지 제2호

법인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5길 27-1 코콤빌딩 2층 | 전화: 02-3672-8988

SEOUL MIGRANT WOMAN SHELTER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부설 서울이주여성쉼터 